



3장

주제와 구성

3.1 주제와 제목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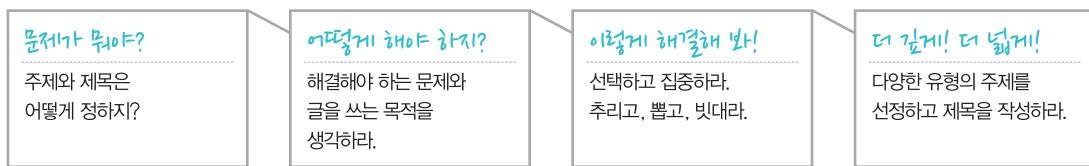
3.2 글의 구성

3.3 개요

“글을 쓰는 것은 나의 지식과 사고를 담아내는
정을 갖는 과정이다.”

3.1 주제와 제목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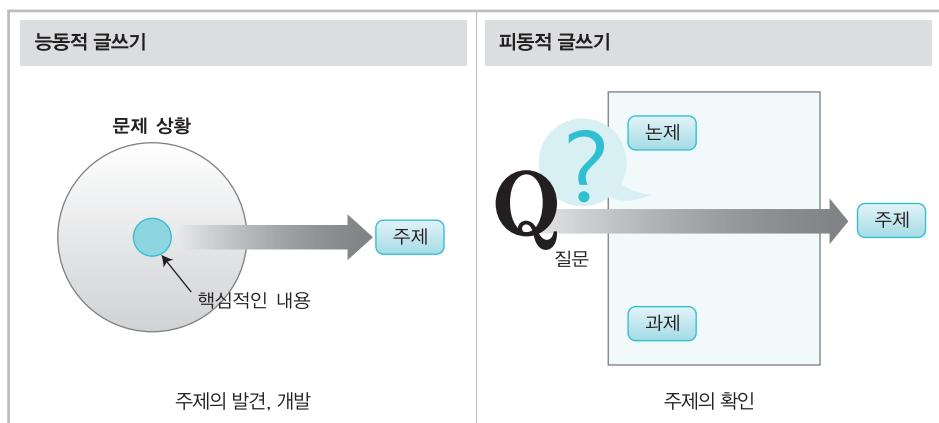
모든 글에는 쓰고자 하는 '무엇', 즉 주제가 있어야 한다. 주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글의 목적과 주제는 제목을 통해 선명히 드러나야 한다. 글의 주제와 제목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목차 주제의 설정 참주제와 가주제 제목의 설정

주제의 설정

무엇에 대해 써야 하지? 많은 사람들이 원고지나 컴퓨터를 앞에 놓고 이러한 고민에 빠진다. 쓰고자 하는 글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글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무엇'을 우리는 '주제'라고 한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이든 써야 할 그 무엇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글을 쓰는 행위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글의 주제는 이미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여 글을 쓰는 능동적 글쓰기는 자신의 힘으로 주제를 발견하거나 개발하여 쓰는 것이기 때문에 써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혹은 주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일은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나 상황의 요청에 의해서 글을 쓰게 될 때이다. 즉, 시험문제의 답안, 리포트, 회사에서의 보고서 등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글을 쓰게 된

다. 누군가가 써야 할 것에 대해 정해 놓고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피동적인 글쓰기 상황이 오히려 주제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평가를 위한 시험이나 리포트 등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업무상의 글은 수행해야 할 과업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형	문제/논제/과업	주제
물리학 시험	용수철이 평행위치에서 x 만큼 변화할 때, 그 작용하는 복원력을 후크의 법칙에 따라 고려하여 용수철의 탄성 패턴설 에너지가 $\frac{1}{2kx^2}$ 임을 증명하시오.	퍼텐셜 에너지 증명
공학 기말보고서	엘리베이터 제어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그 설계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 하시오.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설계
시장 조사 보고서	A지역에 새로운 대리점을 내는 것이 수익성이 있을지 보고하라.	수익 가능성 보고
연구 논문	광섬유 접속기 실습을 통한 공학 교육 연구	공학 교육 방안
신문 투고 칼럼	이공계열은 글쓰기가 두렵다.	글쓰기 교육 방안

대학에서의 시험이나 기말보고서는 위와 같이 주제가 명시되므로 명시된 주제에 따라 글을 쓰면 된다. 기업에서의 보고서 또한 부서나 팀에 따라 업무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부서의 성격 및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맞게 주어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연구 논문이나 신문 투고 칼럼 등은 글쓴이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학술지의 기획이나 언론사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게 될 때도 있으므로 기획과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주제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글의 주제를 찾지 못한다면?

주어진 문제, 혹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라.

예제 3-1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쓴다고 할 때 다양한 유형의 글에 적합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보기

한여름과 한겨울에 전력 예비율이 임계점까지 떨어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전체가 암흑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 제품, 전기 이용 시설이 정지되어 전 국토가 마비될지도 모른다.

대학생의 기말보고서	
전기 공급자 측의 보고서	
학자의 연구 논문	
학자의 신문 투고 칼럼	
신문의 사설	

풀이

글쓴이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글의 종류와 주제가 달라지는데 같은 문제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글을 쓸 때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확인해 보는 문제이다. 정해진 주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 본 후 가장 전형적인 주제를 써 보도록 한다.

답 대학생의 기말보고서	최근 5년간 성수기 전력 예비율 현황
전기 공급자 측의 보고서	안정적 전력 예비율 유지를 위한 전력 생산 및 공급 방안
학자의 연구 논문	한국의 경제성장과 전력수요 간의 인과성에 관한 연구
학자의 신문 투고 칼럼	겨울철 대정전은 재앙
신문의 사설	전기 過소비 체질 이대로 두면 큰 탈 부른다

- 대학생의 기말보고서 : 대학생의 기말보고서는 그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력 예비율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전망 정도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 전기 공급자 측의 보고서 : 전기 공급자 측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따라서 전력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치밀한 보고서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 학자의 연구 논문 : 연구자의 논문은 사태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아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력 거래소 운용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 학자의 신문 투고 칼럼 : 신문의 독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결과를 담을 수 있는 글을 칼럼으로 써야 한다. 일반인들이 블랙아웃 사태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 신문의 사설 : 신문의 사설은 신문사 전체의 확실한 주장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을 촉구하는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연습 3-1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글을 쓴다고 할 때 다양한 유형의 글에 적합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쓰시오.

- ① 생명공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및 사회 전반의 동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대학생의 기말보고서	
전기 공급자 측의 보고서	
학자의 연구 논문	
학자의 신문 투고 칼럼	
신문의 사설	

- ② 대학 등록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대학생의 기말보고서	
전기 공급자 측의 보고서	
학자의 연구 논문	
학자의 신문 투고 칼럼	
신문의 사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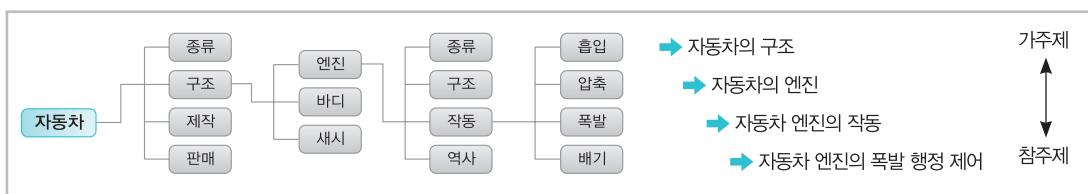
참주제와 가주제

자신이 정한 주제로 글을 쓰든, 주어진 주제로 글을 쓰든 주제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글을 쓰려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는 글쓰기 능력 전체의 문제일 수 있지만 주제의 선정 단계만 본다면 주제가 아직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고궁 중 가장 규모가 큰 경복궁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고 할 때 어떤 사진을 찍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사진의 주제를 ‘경복궁’이라고 했을 때 드넓은 경복궁의 무엇을 찍어야 이 주제를 잘 부각시킬 것인가를 정하기는 쉽지 않다. 경복궁은 매우 넓기 때문에 경복궁 안에서 전체를 사진에 담아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나 옛날 문만으로는 경복궁을 잘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복궁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대상을 잘 선택해 그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인 향원정과 주변의 풍경을 잘 담아내면 경복궁의 아름다움을 잘 묘사한 사진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보자.



‘자동차’라는 주제는 매우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바로 글을 쓰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주제를 보다 세분해야만 한 편의 글로 써 낼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는 여러 단계를 걸쳐 세분할 수 있고 세분화한 각각의 단계 모두가 ‘자동차’라는 큰 주제의 하위 주제가 된다. 각 단계의 주제는 서로 가주제와 참주제의 관계를 맺는다. 즉 상위의 주제는 가주제가 되고, 하위의 주제는 참주제가 된다.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참주제이므로 주어진 주제를 점차 세분하고 좁혀서 참주제를 정해야만 비로소 글을 써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이다. 가주제는 몇 개의 하위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참주제가 된다. 만약 주제를 더 세분하고 싶으면 참주제를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참주제는 가주제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단 참주제가 결정되면 다른 요소는 모두 배제하고 정해진 참주제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져 야만 선명한 주제로 명쾌한 글을 쓸 수 있다

가주제와 참주제의 관계는 글을 구성해 나가는 단계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자동차의 구조’를 참주제로 결정했다면 ‘엔진, 바디, 새시’ 등은 ‘자동차의 구조’라는 글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만약 ‘자동차 엔진의 작동’을 참주제로 정했다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각 행정은 이 글을 이루는 하위 요소가 된다. 이렇듯 참주제와 가주제의 관계를 글을 구성하는 방법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적절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의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자유연상(브레인스토밍, Brain Storming)이다. 글쓰기에서의 자유연상은 글의 주제와 구조를 정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이 방법은 스스로 주제를 정할 때 더 유용하지만 주어진 주제에서 참주제를 정할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들을 자유롭게 적거나 이야기 해 본 후 그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해 나가면 참주제를 결정할 수 있다.



주제가 머릿속에 맴돌기만 할 뿐 글로 발전되지 못한다면?

쓰고자 하는 훌륭한 주제를 선택하고 오로지 그 주제에 집중하라.

예제 3-2

‘베아복제’를 주제로 글을 쓴다고 가정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 보시오.

— — — — — — — — —

풀이

글의 주제를 정할 때 유용한 자유연상(브레인스토밍)을 연습해 보는 문제이다. 자유연상의 과정은 자신의 지식과 사고에 따라 매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연상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따라 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다. 단, 주제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연상의 과정 중에 나온 것 중에 주제로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해 본다.



생명 – 창조 – 신의 영역 – 인간의 영역 – 시험관 – 조작 – 프랑켄슈타인 – 인조인간 – 우생학 – 윤지역 차로

자유연상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연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다. 예시는 배아복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것의 장단점을 따져보는 연상의 과정을 밟고 있다. 자유연상을 하더라도 이처럼 일정한 흐름이 있어 야 글의 주제를 정하고 글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 자유연상의 구체적인 항목 중 하나가 주제가 될 수 있고, 각각의 항목은 글을 구성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도 고려해 연상의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

연습 3-2

다음 주제로 글을 쓴다고 가정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적어 보시오.

- ## ① 지구온난화

② 반도체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③ 네티켓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

예제 3-3

'베아복제'를 주제로 글을 쓴다고 가정하고 포괄적인 주제부터 구체적인 주제까지 참주제와 가주제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차례대로 쓰시오.

→

→

→

→

풀이

참주제와 가주제를 고려해 다양한 주제의 층위를 확인해 보는 문제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적당한 층위의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개념이 참주제와 가주제이다. 양자 간에는 상하관계, 포함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층위의 주제를 써 본다.

답

- 배아복제와 생명 윤리
- 배아와 생명의 시작
- 원시선(Primitive Streak)의 유무와 생명
- 줄기세포(Stem Cell)의 의학적 활용과 생명 윤리

배아복제는 매우 포괄적인 주제이므로 이 주제를 점차 좁혀나갈 수 있다. 예시된 답안은 생명 윤리 차원에서의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를 좁혀나가고 있다.

연습 3-3

다음 주제로 글을 쓴다고 가정하고 포괄적인 주제부터 구체적인 주제까지 참주제와 가주제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차례대로 쓰시오.

① 지구온난화

→

→
 →
 →

② 박도체

→
 →
 →

③ 네티켓

→
 →
 →

제목의 설정

글의 주제를 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글의 제목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목은 글의 맨 앞에 놓여 읽는 이의 관심을 끌며 글의 내용에 대한 암시를 준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제목을 쓰기란 쉽지 않다. 이때 추리기, 뽑기, 빗대기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것은 모두 텔레비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의 제목인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지어진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인 추리기는 글 전체의 내용을 집약한 핵심적인 단어나 구로 제목을 쓰는 방법이다. 학술적인 글이나 공적인 성격이 강한 글은 대개 이러한 방식으로 제목을 쓴다. 이러한 방식의 제목

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 전체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인 **뽑기**는 글 전체의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 구, 문장을 글의 제목으로 삼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신문의 사설이나 각종 연설문과 같이 주장을 담은 글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인 **빗대기**는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물이나 개념에 빗대어 제목을 쓰는 방식이다. TV를 지나치게 많이 보면 보는 사람마저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TV를 바보상자에 빗대어 제목을 쓴 것이다. 이 방식은 학술적인 글이나 공식적인 글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며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글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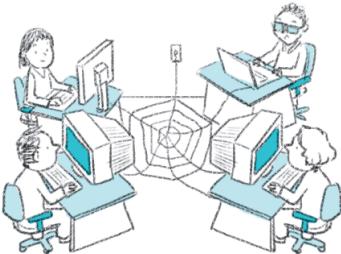
Key Point

글의 제목을 멋지게 붙이고 싶다면?

내용을 추리고, 최선의 것을 뽑고, 적절한 다른 대상에 빗대라.

예제 3-4

다음 그림을 바탕으로 '인터넷'에 대한 글을 쓴다고 가정하고 적절한 제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쓰시오.



추리기	
뽑기	
빗대기	

풀이

다양한 방법으로 글의 제목을 써 보는 문제이다. 글의 제목은 자유롭게 붙일 수 있으나 '추리기, 뽑기, 빗대기'의 세 유형으로 붙이면 보다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세 유형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제목을 붙여 본다. 나아가 이 유형 이외의 제목도 자유롭게 써 본다.

답 추리기	인터넷의 발달과 가족의 해체
뽑기	가족을 부활시키려면 인터넷을 없애라
빗대기	끊어지기 쉬운 거미줄에 엮인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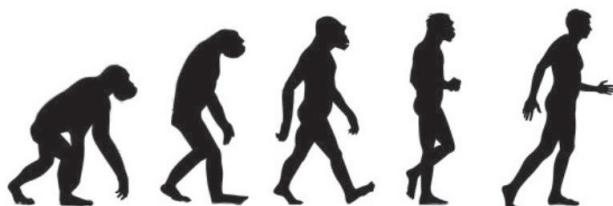
제시된 그림은 가족 모두가 인터넷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가족마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추리기 :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족마저 해체된 상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제목이다.
- 뽑기 : 인터넷의 발달로 해체된 가족을 부활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인터넷을 없애는 것이라면 이 주장을 뽑아 제목으로 쓸 수 있다.
- 빗대기 : 인터넷은 일종의 그물망(net)이고 그림에도 거미줄이 그려져 있으므로 가족의 연결 관계를 거미줄에 빗댈 수 있다. 또한 끊어지기 쉬운 거미줄의 특성에 착안해 비유적인 제목을 붙였다.

연습 3-4

다음의 그림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고 가정하고 적절한 제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쓰시오.

- ① 진화론은 비과학?



추리기	
뽑기	
빗대기	

- ② 환경호르몬



추리기	
뽑기	
빗대기	

③ 공정성



추리기	
뽑기	
빗대기	

예제 다음에 제시되는 가주제로 논설문을 쓴다고 할 때 각 단계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 시오.

가주제	소프트웨어 산업
참주제	
제목 / 제목 유형	

풀이

가주제와 글의 유형이 정해져 있을 때 참주제와 제목을 쓰는 일련의 과정을 연습해 보는 문제이다. 주어진 가주제를 보다 구체화해 참주제를 써 본다. 제목은 제목을 정하는 세 가지 유형을 고려해 가장 적합하게 쓴다. 정해진 답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참주제와 제목을 자유롭게 써 볼 수 있다.

답 가주제	소프트웨어 산업
참주제	저작권법 강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산업 보호 및 육성 방안
제목 / 제목 유형	한류 가수? 아니 한류 소프트웨어! / 빗대기

- 참주제 : '소프트웨어 산업'은 매우 포괄적인 주제이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초점을 맞추어 소프트웨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제를 구체화하였다.
- 제목 / 제목 유형 : 한류 열풍이 가요계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빗대기의 방법으로 제목을 정하였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한류 열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연습 다음에 제시되는 가주제로 지정된 유형의 글을 쓴다고 할 때 각 단계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설명문

가주제	공학 교육
참주제	
제목 / 제목 유형	

② 논설문

가주제	공학도와 기초과학
참주제	
제목 / 제목 유형	

③ 설명문

가주제	로봇 산업
참주제	
제목 / 제목 유형	

3.2 글의 구성

한 편의 완성된 글은 잘 짜인 구조체여야 하는데 이런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다. 모든 구조체에는 일정한 구성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구성의 유형은 글쓰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구조체의 구성 유형을 파악해 글의 구성을 효과적으로 해 보자.

문제가 뭐야?

글을 어떻게 구성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구성의 유형을 파악하라.

어떻게 해결해 봐!

직렬 구성, 병렬 구성, 그리고 복합 구성을 활용하라.

더 깊게! 더 넓게!

주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구성을 적용하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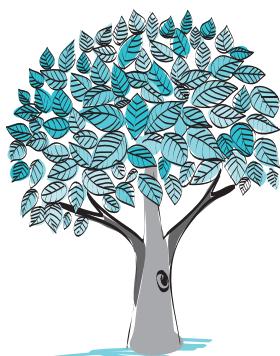
구성의 원리 구성의 유형 구성의 실제

구성의 원리

글은 문장의 집합이고, 문장은 단어의 집합이며, 각각의 단어는 글자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관계를 형식적으로 고려하여 글자들을 모으면 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첫 글자, 첫 단어부터 막히는 경험을 많이 한다. 문장을 모아 글을 써 나가려 해도 어떤 문장을 어떤 순서로 써 나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 이는 단어나 문장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큰 차원의 문제이다. 모든 글에는 일정한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구조를 먼저 정해놓아야만 어떤 문장을 어떤 순서로 써 나가야 하는지가 결정된다. 결국 글은 글자, 단어, 문장의 무조건적인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갖추어야 함을 파악해야 막힘없이 써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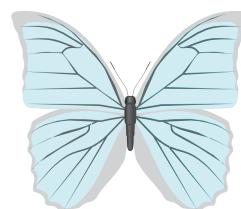
글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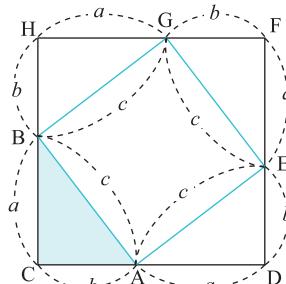
나무의 외형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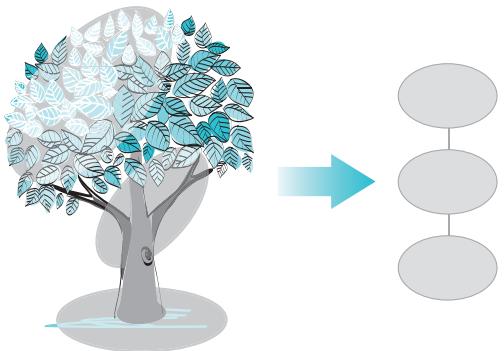
나비의 한살이

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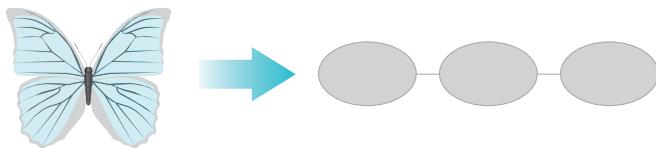


피타고라스의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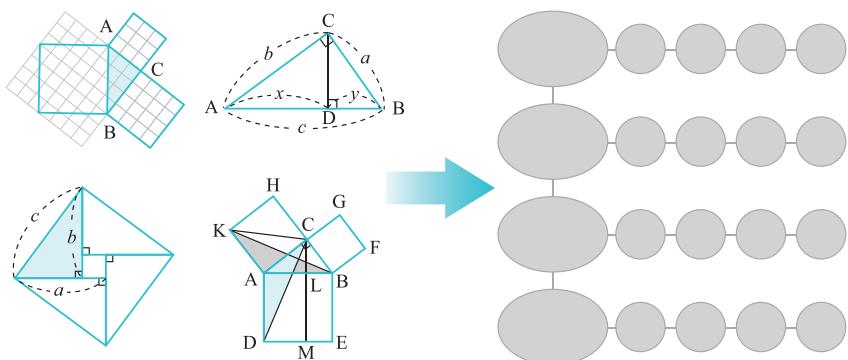
나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무의 외형을 묘사하여 알려준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 무작정 잎이나 줄기부터 묘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나무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일차적으로 나무를 ‘뿌리, 줄기, 잎’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묘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진 세 부분도 역시 적절한 기준으로 더 나누어 묘사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일정한 유형의 구조를 가진 것에 대해 묘사할 때는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비의 일생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나비가 되기까지는 알, 애벌레, 번데기의 과정을 거친다. 즉 나비가 낳은 알이 부화되면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다 자라 번데기가 되었다가 우화하면 나비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안다면 이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거나 일정한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는 일은 그 순서나 과정을 파악하여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익히 알려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다시 증명하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다. 만약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증명 방법을 알고 있다면 네 가지 방법 모두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증명하는 길은 무엇일까? 이때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각각의 방법으로 차례차례 증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 또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증명해야 보다 효과적인 증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글을 구성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글이 문장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를 갖추려면 쓰고자 하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 글을 구성해야 쓰기에도 쉽고 읽기에도 쉽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의 사고에 존재하는 일정한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 만물이나 인간의 사고 모두 일정한 공간적 배치를 갖거나 시간적 순서를 따른다. 또한 보다 복잡한 것은 공간적 배치와 시간적 순서를 모두 따르며 존재한다. 이러한 질서를 파악해 글을 구성해 나간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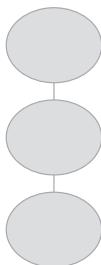


글을 구성하는 원리를 파악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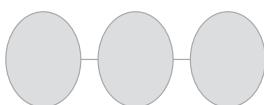
자연계에 존재하는 구조체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라.

예제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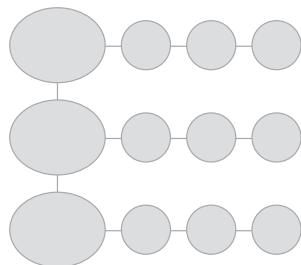
다음에 제시되는 각각의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연결하시오.



(A)



(B)



(C)

① 원자로의 종류

② 주기율표의 역사

③ 원소 분류

풀이

주제에 따라 글의 구조를 판단해 보는 문제이다. 같은 주제라도 여러 가지 구조를 모두 쓸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글의 구조를 찾아본다. 그리고 다른 유형이나 이보다 더 세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본다.

답

- ① 원자로의 종류 : (A)
- ② 주기율표의 역사 : (B)
- ③ 원소 분류 :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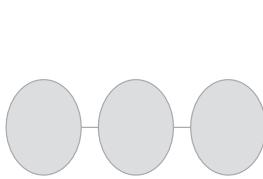
① 원자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대등적인 것이 나열되는 (A)구조가 적합하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므로 (B)구조가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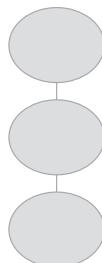
③ 원소를 크게 분류한 후 다시 각각을 세분할 수 있으므로 (C)구조가 적합하다.

연습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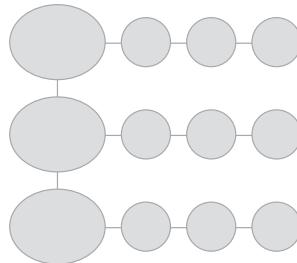
다음에 제시되는 각각의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글의 구조를 연결하시오.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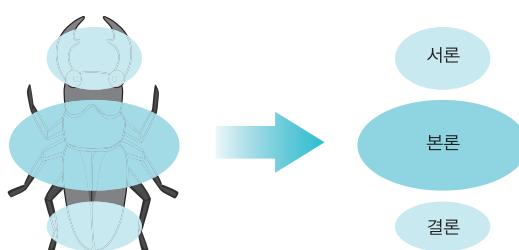
- ①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역별 해수면 상승 추이
- ② 프로야구의 한해살이
- ③ 태풍의 일생
- ④ 주요 국가별 희토류 매장량
- ⑤ 주택 유형별 공급량 변화

구성의 유형

글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구성 유형을 살펴보면 글을 구성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어떤 종류의 글이든 기본적인 형식을 갖춘 글이라면 모두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추고 있다.

글의 맨 앞에는 글 전체를 이끄는 머리 부분이 놓이는데 이 부분을 논설문이나 설명문 등의 실용문에서는 서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맨 뒤에는 글을 마무리하는 꼬리 부분이 놓이는데 이 부분을 실용문에서는 결론이라고 한다. 이 두 부분은 어떤 형식이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리 길지 않은 글이라면 글의 앞과 뒤에 한 단락씩만 써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넣기만 하면 되므로 글을 구성할 때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결국 글을 구성할 때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몸통에 해당하는 본론 부분이다. 구성의 핵심은 본론을 몇 개의 요소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인데 본론을 구성할 때는 구성의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즉, 본론의 각 요소를 대등한 자격으로 나열하거나 순차적으로 연결해 가는 방식으로 본론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건전지의 연결 방식을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전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라 병렬과 직렬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고 보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는 병렬과 직렬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의 본론을 구성할 때도 직렬과 병렬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글 전체의 구조가 일목요연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글의 길이가 짧을 때는 직렬 또는 병렬 중 한 가지 방식만 활용해 글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든 글의 구조는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글의 구성 유형을 이해하려면?

직렬, 병렬, 복합 세 가지 유형을 기억하라.

예제 3-6

다음에 제시되는 각각의 주제로 글을 쓴다면 어떤 구성을 택할 것인지 표시하시오.

짧은 글	긴 글
① 원자로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② 주기율표의 역사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풀이

주제에 따라 글의 구성 유형을 정해보는 문제이다. 짧은 글을 쓸 때는 직렬이나 병렬 하나의 유형을 택할 수 있다. 그러나 긴 글을 쓸 때는 직렬과 병렬을 같이 써야 한다. 주제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구성 유형이 있으나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적의 구성을 찾아보되 다른 구성 유형도 함께 생각해 본다.

답	짧은 글	긴 글
	① 원자로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렬 ② 주기율표의 역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병렬 – 직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 ① 원자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므로 대등적인 것이 나열되는 병렬구조가 적합하다. 또한 각각의 유형을 세분하여 긴 글을 쓸 때는 병렬–병렬구조가 적합하다. 만약 각 유형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쓰고자 한다면 병렬–직렬구조도 가능하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이므로 직렬구조가 적합하다. 또한 각 시기를 세분하여 긴 글로 쓴다면 직렬–직렬구조도 가능하다.

연습 3-6

다음에 제시되는 각각의 주제로 글을 쓴다면 어떤 구성을 택할 것인지 표시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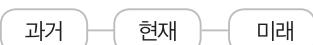
짧은 글	긴 글
① 원소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② 해수면 상승 추이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③ 프로야구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④ 태풍의 일생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⑤ 희토류 매장량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⑥ 주택 공급량 변화 <input type="checkbox"/> 직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직렬 <input type="checkbox"/> 직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병렬 <input type="checkbox"/> 병렬 – 직렬

구성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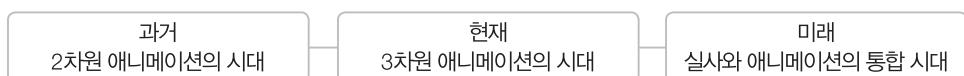
글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선택은 주제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 사건, 정해진 단계 또는 과정을 밟는 일, 인과관계를 이루는 사건 등은 직렬식 구성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직렬식 구성을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직렬식 구성을 유형

① 시간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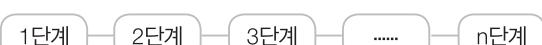
예) 애니메이션의 역사



예) 프로야구의 한해살이



② 과정



예) 벤처기업의 몰락



첫 번째 예는 직렬식 구성의 전형적인 예이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시간적 흐름은 절대적인 순서이므로 이에 따라 글을 구성하면 글을 쓰는 이와 읽는 이 모두가 쉽게 글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봄 – 여름 – 가을 – 겨울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환하는 대상도 직렬식 구성에 적합하다. 두 번째 예는 과정에 따른 직렬식 구성의 예이다. 각각의 단계는 시간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순서가 바뀌는 일은 없다.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 글을 구성해 나가면 이해하기에 매우 쉬운 글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단계가 인과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직렬식 구성이 적합하다.

대등한 요소끼리 공간적 배치를 보이거나 부분, 부류 등이 대등한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병렬식 구성이 적합하다. 병렬식 구성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병렬식 구성의 유형

① 지역

예) 지역별 애니메이션

1지역	일본식 애니메이션
2지역	미국식 애니메이션
.....	한국식 애니메이션
n지역	기타

② 부분

예) 애니메이션에 대한 세대별 반응

1부분	아동 : 몰입
2부분	청소년 : 마니아
.....	청장년 : 추억
n부분	노년 : 거부

③ 부류

예)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

1부류	흥미
2부류	상상력 자극
.....
n부류	화려함

첫 번째 예처럼 대등한 속성을 가진 것이 지리적으로 다른 분포를 보일 경우 병렬식 배치가 매우 효과적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대등한 자격을 가진 부분 또는 부류가 서로 다른 속성을 보이는 경우로서 이때에도 병렬식 배치가 사용될 수 있다. 병렬식 구성은 할 때는 각각의 요소가 동일한 층위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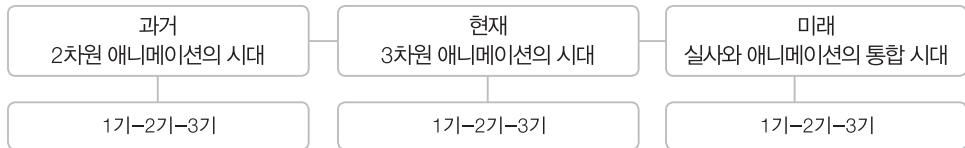
글의 내용이 길어질 때는 여러 가지 배치 방식이 혼용된 복합식 배치도 가능하다. 즉, 직렬–직렬, 직렬–병렬, 병렬–직렬, 병렬–병렬 등 주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구성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복합식 구성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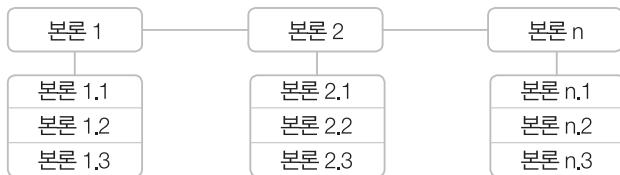
① 직렬–직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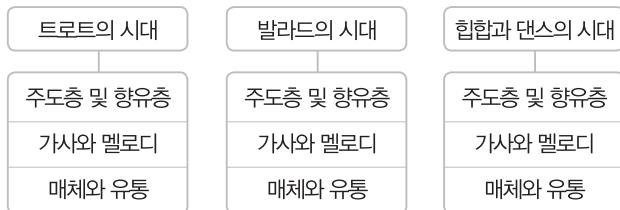
예) 애니메이션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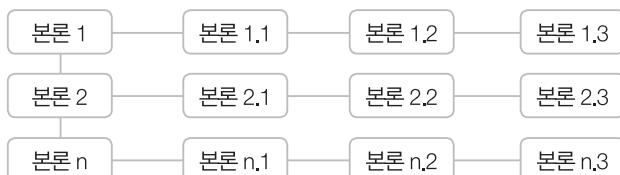
② 직렬-병렬



예) 대중가요의 흐름



③ 병렬-직렬



예) 국가대표 축구팀의 강화 방안



④ 병렬–병렬



예) 벤처기업의 특성별 발전 전략



첫 번째 예는 직렬로 구성된 각각의 요소를 다시 직렬시킨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나누고 각각의 사건을 더 세분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는 직렬로 구성된 각각의 요소를 다시 병렬시킨 것으로, 글 전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되 각각의 요소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몇 개의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러한 구성은 병렬 – 직렬로 바꿀 수도 있다. 즉, 세 가지 요소를 병렬시킨 뒤 각각의 요소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다시 나누어 구성할 수도 있다. 이것은 결국 세 번째 방식과 같은 방식이 된다. 따라서 병렬 – 직렬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마지막 예는 병렬을 병렬시킨 예로서 대등한 요소로 글 전체를 구성한 후 각각의 요소를 다시 병렬시킨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성 유형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다. 즉 이러한 유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제시한 것뿐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되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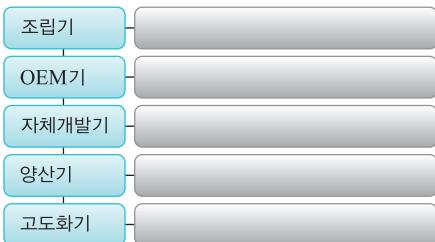
Key Point

글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려면?
주제에 따라 적절한 구성 유형을 택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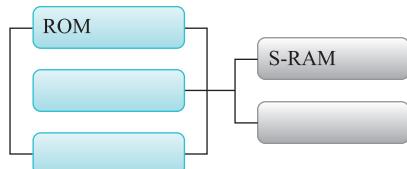
예제 3-7

‘반도체’를 주제로 글을 구성하고자 할 때 본론 구조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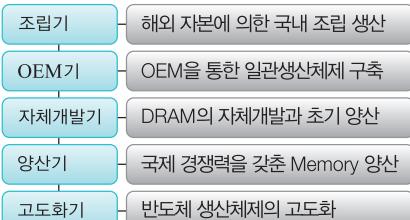
■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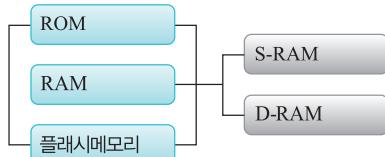
주제에 따라 적절한 구성 유형을 선택하고 각각의 세분화된 주제를 써 보는 문제이다. 주제에 따른 구성 유형은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최적의 구성을 생각해 본다. 그리고 구성 유형을 정하는 것과 동시에 각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써 본다. 하나의 유형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유형을 같이 생각해 본다.

답

■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



■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



-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 과정 :** 역사적인 흐름에 따른 서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렬식 구성이 적합하다. 일단 시기를 나눈 후 각 시기에 이름을 붙여 주고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썼다. 직렬식 전개를 할 때는 시기를 명확히 나누는 작업과 각 시기에 적절한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 :** 메모리 반도체의 유형을 셋으로 나누고 그 중의 하나를 다시 세분한 것이므로 병렬 – 병렬구조를 택했다. 각각의 항목을 분류할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분류된 항목끼리는 겹치지 않아야 한다.

연습 3-7

다음에 제시되는 주제로 글을 구성하고자 할 때 본론 구조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① 지구온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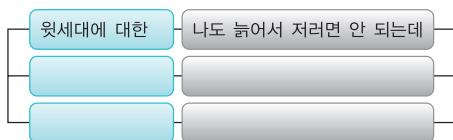
- 지구온난화의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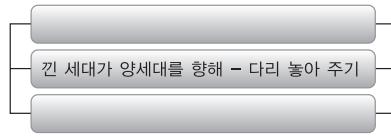
- 지구온난화의 피해 양상

② 세대차이

- 세대차이에 대한 세대별 반응



- 세대차이 극복을 위한 세대별 노력



예제 다음에 제시되는 글의 구조를 파악해 빈칸에 알맞게 쓰시오.**다래끼를 치료하는 세 가지 방법**

그 많던 다래끼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어린 시절 반에 한 둘은 다래끼가 나서 눈이 통통 부어 있거나 안대를 해서 애꾸가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통 다래끼에 걸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 탓에 다래끼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 삼대가 실력 발휘를 할 기회가 없어져 아쉽기만 하다. 그런데 문득 다래끼를 치료하는 세 가지 방법이 떠오른 것은 틀림없이 직업병 탓이리라.

할머니는 역시 고수였다. 마을 사람들 중 다래끼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할머니를 찾아왔고 할머니는 호미 한 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환자를 인도했다. 생년, 월, 일, 시 사주에 따라 전후좌우로 몇 발자국씩 움직이게 하고는 마지막 멈춘 곳의 땅을 팠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땅속에서 조그마한 숯덩어리가 나왔고 할머니는 그게 다래끼의 씨였다면서 아궁이에 넣어 태웠다. 그리고 2~3일이 지나면 다래끼는 씻은 듯이 나았다.

아버지 역시 할머니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 가끔씩 할머니는 환자를 아버지에게 물려 주셨고 아버지는 물려받은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셨다. 밭을 깨끗이 씻기고는 먹과 봇을 준비해 양발바닥에 정성스럽게 한자로 글씨를 쓰셨다. 대개는 平, 安, 幸, 福 이런 글자들이었던 것 같다. 발바닥에 전해오는 봇의 촉감 때문에 깔깔대던 환자들은 만족하며 돌아갔고 묘하게도 그 환자 역시 2~3일 안에 다래끼가 다 나았다.

그 피가 다른 곳으로 흐르지는 않아 나 역시 재주가 있었다. 어쩌다 다래끼에 걸리면 나는 눈썹을 하나 뽑아 돌무더기 속에 넣어 두었다. 누군가가 그 돌무더기를 발로 찼고, 2~3일 안에 내 다래끼는 그 사람에게 옮겨 갔다. 한번은 조회 시간 전에 눈썹을 뽑아 운동장 한 쪐에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이 마침 전교생이 교실로 들어가는 통로여서 200명 전교생 중 반 이상이 다래끼에 걸렸으니 내 방법도 꽤나 효험이 있었나 보다.

가르치는 일이 직업이 되고 난 뒤로 늘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는 나에게 큰 숙제일 수밖에 없다. 딱히 약을 먹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다래끼처럼 놔둬도 알아서 잘 커나갈 학생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잘 크게 할까를 고민하다 보니 별별 방법이 다 동원된다. 더욱이 가르쳐야 할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라 이름 붙은 것이니 더더욱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맨 처음 선택한 방식은 내가 다래끼를 치료한 방식과 마찬가지인 ‘전이(轉移)’의 방식이었지만 한계가 뻔히 보였다. 내가 아는 다래끼 치료법은 기껏해야 남에게 나의 것을 옮기는 것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교육은 몇 년 먼저 배워서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불과했다. 몇 번 옮기고 나면 곧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을 채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그 바닥을 채울 수 있는 해법은 아버지가 다래끼를 치료한 방식과 마찬가지인 ‘전거(典據)’의 방식이었고 약간은 효과를 보긴 했다. 내 경험과 지식이 되지 않는다면 아버

지가 천자문에서 한자를 꺼내 오셨듯이, 도서관과 서점에서 이책 저책 뽑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맛보기로 약간 보여주고 중요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 책을 찾아 읽으라고 다그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남들 다 알고 있는 지식을 소개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도 창의적으로 해결할지는 막막할 뿐이었다.

늦게야 ‘확신으로의 인도’를 통해 치료하는 할머니의 비법을 알아냈고 그 속에서 ‘전도(傳道)’를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의 비법을 찾았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사주를 모두 외고 계셨고, 좁은 마당이다 보니 잔치 때 술을 걸고 장작을 땄던 곳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환자가 찾아오면 사주와 숯이 있는 자리를 역산해 손을 잡고 인도하셨고 그 속에서 숯을 캐내 치료의 확신을 주셨다. 할머니는 다래끼 걸린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당신만이 아는 방법으로 구현했던 것이다. 결국 학생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그들과 함께 어디엔가 있을 창의적 문제해결책을 찾아 나서지 않고 서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신을 주지 않고서는 어떤 창의적 교육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아둔한 내게 맡겨진 학생들이 불쌍할 따름이지만 때늦은 깨달음에 의지해 같이 길을 떠나보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다.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다.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경험과 몇 권 되지도 않는 학생들을 가두고 강요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학생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다행이다. ‘창의적인 문제해결책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확신은 없지만 어딘가에 반드시 있고 같이 찾다보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나마 있어 다행이다. 이제야 두 눈의 안대를 뗀 느낌이다.



풀이

다소 긴 글을 읽고 글의 구성을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구성이 잘 갖춰 글을 분석해 내는 것은 글을 잘 쓰는 데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평소에 좋은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구조도 함께 파악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글은 기본적인 구성 유형을 조금씩 변형시킨 것이므로 기본적인 유형을 먼저 생각해 본 후 보다 자세하게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본다.



제시된 글은 글의 구조가 매우 정연한 글이다. 글의 전반부에는 다래끼 치료법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글의 후반부는 이 세 가지 치료법을 교육법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매개 단락을 중간에 넣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글은 반드시 이런 구조를 취할 필요는 없지만 정연한 구성을 갖춘 글은 쓰기에도 쉽고 읽기에도 쉬우므로 글을 읽을 때 구조를 잘 살펴보고 좋은 구조는 익혀 두었다 활용하는 것도 좋다.

연습 다음에 제시되는 글의 구조를 파악해 빈칸에 알맞게 쓰시오.

기술 문화는 과학 문화와 다르다

기술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과학 문화와 다르다. 먼저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 과학 문화는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을 다루는 반면에 기술 문화는 실생활과 산업현장에서 곧잘 접하는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 등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두 문화의 기본 특성이 구별된다. 과학 문화는 기초과학의 이론을 소개하기 때문에 지식 위주이며 아무래도 과거 지향적이지만 기술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술을 확산시켜야 하므로 정보 중심이며 미래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문화의 생산 방식도 판연히 다르다. 과학 문화는 도서관의 자료를 뒤적여 과거의 축적된 지식을 여러 형태로 변형시켜 내놓는 반면에 기술 문화는 세계 곳곳의 연구 현장에서 새로 출현하는 첨단기술의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산업현장에 제공한다.

주요 수요자 역시 계층이 다르다. 과학 문화는 기초과학 이론을 지식으로 습득하여 공부에 활용하려는 학생들을 겨냥하지만 기술 문화는 산업정보를 획득하여 제품 개발에 적용하려는 기업인들이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식을 얻으려는 일반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 문화와 기술 문화는 관심의 대상, 기본 특성, 생산 방식, 주요 수요자 등 모든 면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학 문화와 기술 문화를 차별화하지 않은 채 과학기술 문화로 뭉뚱그려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두 문화 모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기술 문화는 과학 문화에 밀려 거들떠보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기술 문화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문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과학문화재단이 펼치는 사업을 훑어보면 기술 문화가 설 자리가 없음을 그냥 눈치챌 수 있다. 그동안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의 자문을 받아 “우수창작 과학도서의 벌간을 장려하고 일반대중들이 유익한 과학도서를 쉽게 골라 읽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선정했다는 이른바 우수과학도서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 과학 문화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책 제목에는 개미, 물고기, 뱀, 거미, 나무 따위가 들어 있지만 컴퓨터, 다리, 자동차, 나노기술, 로봇, 반도체 등 기술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전문가들이나 관심을 가질 법한 뱀이나 거미에 관한 책을 일반대중들에게 유익한 도서라고 추천하며 ‘과기부 인증 우수과학 도서’ 마크를 냅다 찍어주고 신문에 광고를 해대고 있다.

기술 문화는 학교의 독서교육에서도 홀대를 받고 있다. 가령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를 보면 과학수필이 네 편이나 실려 있는데 모두 나무나 곤충 따위의 생물에 관한 내용뿐이다. 교과서를 편집한 국어학자들에게 첨단기술에 관한 글을 한 편이라도 실을 줄 아는 균형 감각이 있었더라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기술, 나아가서는 공대 진학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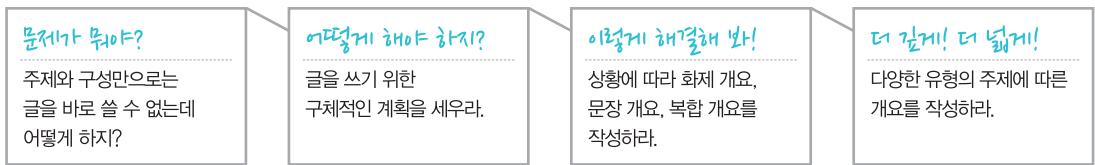
관심을 갖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교두보를 마련해야 하는 출판시장 역시 교양기술 도서의 불모지이다. 책방의 과학코너에 한 번 들러보시라.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책들이 지천으로 널려있지 않은가. 저자와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엇비슷한 교양과학 도서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게다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책들은 신화나 역사 등 주로 과거에 관한 것들이다.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독서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기술도서가 잘 팔릴 까닭이 없다.



3.3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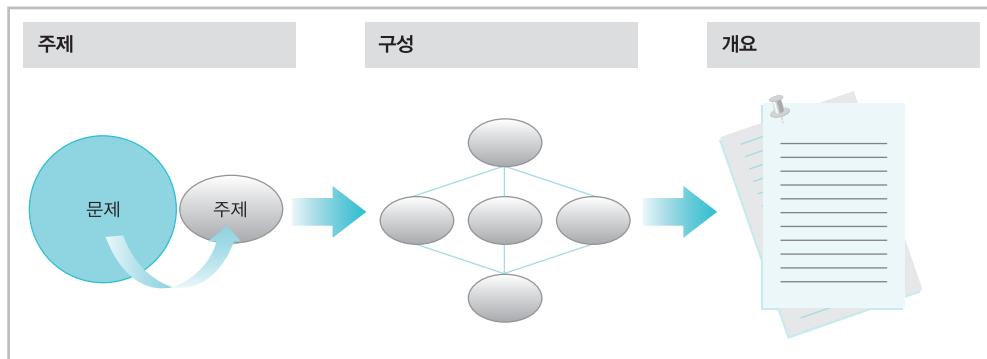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글의 구조를 짰다고 해서 글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을 지을 때 상세한 시공계획서가 필요하듯이 글을 쓸 때 필요한 것이 개요이다. 개요에 담아야 할 내용과 개요를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



목차 개요의 필요성 개요의 유형

개요의 필요성

글의 구성은 글 전체의 뼈대를 보인 것일 뿐 글을 쓰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밝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글을 효과적으로 집필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세세한 내용과 방법을 밝힌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이처럼 글을 집필하기 위해 글의 내용과 형식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적은 것을 개요라고 한다.



개요에는 글의 제목, 주제를 명확히 기록한다. 그리고 글의 각 구성요소를 차례대로 쓰고 그 요소를 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재료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한다. 이 개요에는 문제의 발견과 주제의 설정, 구성 과정에서 고려한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이 개요만 있으면 글을 손쉽게 써 나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개요를 쓰면 다음과 같다.

개요의 필수 요소

- 제목 :
- 주제 :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1. 서론

.....

2. 본론 1

.....

3. 본론 2

.....

4. 본론 3

.....

5. 결론

.....



화제 개요

- 제목 : 텔레비전의 해악
 - 주제 : 텔레비전의 해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1. 서론
 -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나친 몰입
 - 텔레비전의 해악 파악과 극복 방안 모색
 2. 텔레비전은 아이들의 능동적 사고 저해
 - 텔레비전의 수동성
 -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능동적 사고에 미치는 해악의 사례
 3. 텔레비전은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막는다.
 - 텔레비전의 획일성
 -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해악의 사례
 4. 책을 통한 능동적, 창의적 사고 배양.
 - 책을 통해 익힐 수 있는 능동적 사고
 - 책을 통해 익힐 수 있는 창의적 사고
 5. 결론
 - 요약
 - 덧붙임

개요의 첫머리에는 제목과 주제를 분명하게 쓴다. 제목과 주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제목을 개요의 첫머리에 놓고 글을 쓰게 되면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통일성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따라서 개요의 첫머리에 놓이는 주제는 가능한 한 분명하게 써야 하고 제목도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주제와 제목은 글 전체를 이끌어 가는 이정표 역할을 하므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도 항상 참조해야 한다. 제목과 주제에 이어서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밝힌다. 예시된 개요는 다음 도식과 같은 구조의 글이다.



글의 구조를 도식화할 때는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개요를 작성할 때는 순차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그 구조가 개요에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서론은 일반적으로 도입과 문제제기로 구성되므로 도입과 문제제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쓴다. 특히 문제제기는 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잘 담기도록 쓴다. 본론에는 각 부분의 화제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을 상세하게 쓴다. 이때 화제가 선명해야 각각의 본론을 통일성 있게 쓸 수 있으므로 화제를 명확히 쓴다. 뒷받침 부분에는 본론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세세한 정보를 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 등을 밝힌다.



글을 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개요를 작성하라.

예제 3-8

다음에 제시되는 개요의 빈 줄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제목 : 매뉴얼 작성을 위한 매뉴얼
- 주제 : 제품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1. 서론

- 사용설명서의 중요성 강조
- 사용설명서의 필요성, 필수 항목, 작성 원칙 소개

2.

- 사용자의 안전
- 제품의 효율적인 사용
- A/S 비용 절감

3. 사용설명서의 필수 항목

-
-
-

4.

- 사용자의 입장에서
- 일목요연하게
- 찾아보기 쉽게

5. 결론

- 필요성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항목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
- 잘 작성된 사용설명서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점 강조

풀이

개요를 완성하면서 개요의 전체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해 보는 문제이다. 개요에는 주제, 구성, 세부적인 내용 모두가 담긴다. 따라서 글 전체의 주제 및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구성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개요의 각 부분을 써 나가면 효과적이다. 답이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자유롭게 쓰되 개요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도록 쓴다.

답

- 제목 : 매뉴얼 작성을 위한 매뉴얼
- 주제 : 제품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 1. 서론
 - 사용설명서의 중요성 강조
 - 사용설명서의 필요성, 필수 항목, 작성 원칙 소개
 - 2. 사용설명서의 필요성
 - 사용자의 안전
 - 제품의 효율적인 사용
 - A/S 비용 절감
 - 3. 사용설명서의 필수 항목
 -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 제품 사용법
 - 응급조치 및 A/S 신청 방법
 - 4. 사용설명서 작성 원칙
 - 사용자의 입장에서
 - 일목요연하게
 - 찾아보기 쉽게
 - 5. 결론
 - 필요성을 명심하고 꼭 필요한 항목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 것이 필요
 - 잘 작성된 사용설명서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점 강조

이 글은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차례로 제공하는 개요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글 전체의 구성상 ‘사용설명서의 필요성, 필수 항목, 작성 원칙’이 꼭 필요하므로 2번과 4번에는 이에 맞는 소주제를 썼다. 그리고 사용설명서의 필수 항목으로는 ‘안전을 위한 유의사항, 제품 사용법, 응급조치 및 A/S 신청 방법’ 등이므로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썼다. 자신의 의도나 지식에 따라 내용을 가감할 수 있다.

연습 3-8

다음에 제시되는 개요의 빈 줄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 제목 : 시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 주제 : 시험 중에 저질러지는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 1. 서론
 - 부정행위가 만연한 세태
 - 부정행위가 나타나는 원인, 양상, 해결책 제시
 - 2.
 - 준비 부족
 - 윤리 결여
 - 관리 소홀
 - 3.
 - 천리안 형 : 남의 답안이 곧 내 답안
 - 돋보기 형 : 철저한 페이퍼 작성에 온 힘을 쓴다.
 - 바꿔치기 형 : 좋은 점수를 위해서면 페이스오프도 가능하다.
 - 4.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
 -
 -
 - 5. 결론
 - 부정행위는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부정행위로 순간의 만족을 얻을 수는 있으나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개요의 유형

개요를 작성할 때 제목, 주제 등은 빠질 수 없는 요소이므로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든 같은 방식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은 상황 및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세부적인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쓰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제 개요	문장 개요	복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 주제 : ← 화제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화제 2. ← 화제 3. ← 화제 4. ← 화제 5. ← 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 주제 : ← 문장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문장 2. ← 문장 3. ← 문장 4. ← 문장 5. ← 문장 	제목 : 주제 : ← 문장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1. ← 화제 ← 문장 2. ← 문장 ← 화제 3. ← 화제 ← 문장 4. ← 문장 ← 화제 5. ← 화제 ← 문장

위에 제시된 세 유형의 개요는 세부 내용을 적는 형식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화제 개요는 세부 내용을 단어나 구 형식의 화제로 쓴 것이고, 문장 개요는 세부 내용을 완전한 문장으로 쓴 것이다. 복합 개요는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의 장점만을 취해 화제와 문장을 섞어서 쓴 것이다. 각각의 형식으로 쓴 개요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화제 개요	문장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텔레비전의 해악 ■ 주제 : 텔레비전의 해악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나친 몰입 – 텔레비전의 해악 파악과 극복 방안 모색 2. 텔레비전은 아이들의 능동적 사고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의 수동성 –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능동적 사고에 미치는 해악의 사례 <p>(이하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텔레비전의 해악 ■ 주제 :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여 독서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나친 몰입 –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사고에 미치는 해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독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텔레비전은 아이들로 하여금 능동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은 음성과 영상을 시청자가 손쉽게 수용하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 –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수동성을 보인다. <p>(이하 생략)</p>

화제 개요는 글의 세부 내용을 단어나 짤막한 구로 쓰기 때문에 개요를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집필할 때는 각각의 화제를 모두 문장으로 써야 하므로 집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문장 개요는 글의 세부 내용을 모두 문장으로 쓰기 때문에 개요를 작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개요의 각 문장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쓸 수 있으므로 글을 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복합 개요

- 제목 : 텔레비전의 해악
- 주제 :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파악하여 독서를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 1. 서론
 -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나친 몰입
 -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사고에 미치는 해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독서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2. 텔레비전은 아이들로 하여금 능동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
 - 텔레비전의 수동성
 - 텔레비전이 아이들의 능동적 사고에 미치는 해악의 사례

(이하 생략)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의 장점만을 취한 것이 바로 복합 개요이다. 복합 개요는 글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문장으로 쓰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화제만으로 간단하게 쓴 개요이다. 글에서 주제, 서론의 문제제기, 각 단락의 화제문 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완전한 문장으로 써서 집필할 때 혼란을 겪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반면에 서론의 도입부, 각 단락의 뒷받침문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간단하게 화제만을 써 준다. 이렇듯 복합 개요는 개요 작성 및 집필 시간을 줄이면서도 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쓸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개요 작성 시간과 집필 시간 모두를 줄이려면?
복합 개요를 작성하라.

예제 3-9

다음에 제시되는 주제에 적합한 화제 개요를 완성하시오.

- 제목 : 유전자 변형 식품은 필요악인가?
- 주제 :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1. 서론

- 유전자 변형 식품의 증가
- 유전자 변형 식품의 개념, 안전성, 대책 제시

2.

- 넓은 의미
- 좁은 의미
- 사례

3.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 종자 개발 과정의 안정성

-

-

4.

- 개발 과정의 안전성 획득 방안
- 재배 과정의 안전성 획득 방안

-

5. 결론

- 필요악이라면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악'을 억제할 방안 필요
- 먼 앞날을 내다보는 태도 필요

풀이

주제 및 개요의 유형에 맞도록 개요를 완성하는 문제이다. 개요의 유형은 숙련도 및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선택해야 한다. 제시된 문제는 화제 개요 형식이므로 단어나 짤막한 구로 핵심적인 내용을 써 보도록 한다. 각 부분의 내용은 글 전체의 주제 및 구조를 고려해 쓴다. 또한 이 개요는 3번과 4번이 짹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각 부분의 화제 및 구체적인 내용을 쓴다.

답

- 제목 : 유전자 변형 식품은 필요악인가?
- 주제 :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 1. 서론
 - 유전자 변형 식품의 증가
 - 유전자 변형 식품의 개념, 안전성, 대책 제시
 - 2. 유전자 변형 식품의 개념
 - 넓은 의미
 - 좁은 의미
 - 사례
 - 3.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 종자 개발 과정의 안정성
 - 재배 과정의 안전성
 - 가공 과정의 안전성
 - 4.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획득 방안
 - 개발 과정의 안전성 획득 방안
 - 재배 과정의 안전성 획득 방안
 - 가공 과정의 안전성 획득 방안
 - 5. 결론
 - 필요악이라면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악'을 억제할 방안 필요
 - 먼 앞날을 내다보는 태도 필요

글 전체의 구성 및 하위의 내용을 볼 때 2번에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고 4번에는 안전성 획득 방안을 넣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3번과 4번은 짹을 이루고 있으므로 각각의 내용을 침조해 구체적인 내용을 썼다.

연습 3-9

다음에 제시되는 주제에 적합한 문장 개요를 완성하시오.

■ 제목 : 넷폭은 가라

■ 주제 : 온라인상에서의 무례한 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1. 서론

-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공간이 되었다.
- 사이버공간에서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 사이버공간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넷폭'을 없애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2.

- 악플은 대표적인 언어폭력 사례이다.
- 허위, 과장, 왜곡된 정보 유포 등 거짓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네트워크상의 폭력 행위이다.
-

3. '넷폭'을 없애기 위한 자정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 네티즌 스스로가 실제 공간에서도 에티켓을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네티즌 스스로가 네트워크상에서도 에티켓을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4.

- 포털, 게시판 등의 관리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네트워크상의 폭력은 철저히 처벌되어야 한다.

5. 결론

- 부정한 행위를 일삼는 넷폭은 적극적으로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이버공간 또한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습 3-10

다음에 제시되는 주제에 적합한 복합 개요를 완성하시오.

- 제목 : 기저귀와 맥주 캔의 딜레마
- 주제 :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 1. 서론
 - 환경 보호의 필요성 부각
 - 다양한 방법의 환경 보호 방안 제시
 - 기저귀와 맥주 캔의 사례를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이 강조되고 있다.
 - 유한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필요성
 - 재활용 중시
 - 천 기저귀 사용과 알루미늄 캔 재활용 사례
 - 3.
 - 천 기저귀 사용으로 인한 수질 오염 vs. 종이 기저귀 사용으로 인한 토양 오염
 - 알루미늄 재활용에 의한 자원 절약 vs. 알루미늄 재활용을 위한 막대한 전력 소모
 - 4.
 - 들판 실에 대한 정확한 비교 필요
 - 부수적인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
 - 5. 결론
 -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 또한 또 다른 환경 파괴 요인이 될 수 있다.
 - 종합적인 안목 필요

예제 다음에 제시되는 글의 구조를 파악해 빈칸에 알맞게 쓰시오.

한 해의 마지막이자 겨울의 처음이 시작되는 달을 맞는다. 늘 그렇듯이 12월의 대학은 종강과 동시에 긴 동면에 들어간다. 곳곳을 가득 메웠던 학생들이 떠난 교정은 추운 겨울 날씨를 실감케 한다. 남겨진 학교뿐만 아니라 떠나간 학생 또한 각자의 공간 속에서 추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학생이 겨울의 추위를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대학생이기를 포기하는 세 가지 것만 하지 않는 것으로도 겨울을 충분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휴학(休學) 하지 마라. 군대를 가야 할 사람, 학업을 잊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사람, 학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생이기를 포기하지 마라. 졸업 후 다가올 청년백수가 두려운, 남들 다 다녀오는 어학연수 대열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운, 나아갈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것이 두려운 학생들은 휴학을 위안으로 삼는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온 이유가 반감되고, 현재의 학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학연수는 자기소개서의 한 줄 경험밖에 되지 않고, 선부른 사회 경험은 쓰라린 상처로 남는다. 선택한 전공에서 진정으로 큰 학문을 익혀 졸업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다. 휴학으로 피난을 떠나기보다는 대학에서 더 부대끼는 것이 필요하다.

방학(放學) 하지 마라. 학기 중에 온 힘을 다해 공부하느라 지친 사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생이 해야 할 것을 망각하지 마라. 방학은 배움을 놓는 시기가 아니라 정해진 틀의 배움에서 나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배움을 선택하는 시기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겠다며 전공 서적 대신 여행 책자만을 배낭에 넣고 지내는 것, 두툼한 교양서 대신 음식점의 얇팍한 메뉴판을 들고 지내는 것은 배움을 내려놓는 방학이다. 학기 중에 따라 가지 못한 것이 있고, 다음 학기에도 따라가기 어려운 과목이 또 있고, 쌓아야 하는 교양은 끝이 없다. 자리싸움이 필요없는 열람실, 읽히기를 기다리는 책으로 가득 찬 서고는 방학 내내 따뜻하다.

집학(雜學) 하지 마라. 토플 점수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운전기사가 천직이라고 여기는 사람, 건강한 몸이 아니라 날씬한 몸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학생이 아닌 학원생이 되려 하지 마라. 영어능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영어는 도구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운전면허도 필요하지만 이것은 기술이지 학문이 아니다. 날씬한 몸매와 균육질의 몸도 중요하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극심한 요요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회는 자신의 분야에 정통한 대학생을 원하지 넓되 얇팍한 기능을 갖춘 학원생을 원하지 않는다.

사회 경험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평생 하게 된다. 졸업을 하게 되면 놓기 싫어도 배움을 놓아야 할 상황이 닥친다. 실무적인 기능은 평생 쌓아야 하고 건강은 일상에서 늘 지켜 나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위해 학교를 떠나고 대학생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대학을 춥게 만들고 자신을 춥게 만든다. 학생은 학교에서 해야 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학교를 가득 메운 학생들의 열정으로 따뜻해지는 겨울을 기대해 본다.

■ 제목 :

■ 주제 :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1. 서론

- 겨울방학 시작
-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2. 휴학 하지 마라 :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유행처럼 번지는 휴학
- 휴학의 폐해

3.

- 방학 동안 학업 이외의 것에 매달리는 것의 위험성
- 지난 학기의 정리와 다음 학기의 준비 필요

4.

-
- 자신의 전공 분야에 정통한 학생이 되려는 노력 필요

5. 결론

- 방학 동안에도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 갖춰야 할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사회 진출을 위한 최선의 길

풀이

주어진 글을 읽고 이 절에서 배운 내용을 전체를 활용하여 개요를 역으로 작성해 보는 훈련을 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주어진 글은 구조가 명쾌하고 각 부분의 주제가 무엇인지 금세 알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따라서 글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제목과 3, 4의 소주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각 단락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그 하위에 들어갈 내용을 쓸 수 있다. 복합개요 방식이므로 이 유형의 특성을 살려 쓰는 것이 좋다.

답

- 제목 : 따뜻한 겨울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 주제 : 겨울방학 동안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 1. 서론
 - 겨울방학 시작
 -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 2. 휴학 하지 마라 :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유행처럼 번지는 휴학
 - 휴학의 폐해
 - 3. 방학 하지 마라 : 방학 동안에도 학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방학 동안 학업 이외의 것에 매달리는 것의 위험성
 - 지난 학기의 정리와 다음 학기의 준비 필요
 - 4. 잡학 하지 마라 : 방학 동안 학업 이외의 다른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 영어 공부, 디어트, 운전 학원 수강 등의 문제
 - 자신의 전공 분야에 정통한 학생이 되려는 노력 필요
 - 5. 결론
 - 방학 동안에도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 갖춰야 할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사회 진출을 위한 최선의 길

제목은 글 전체의 내용을 살려서 작성하였는데 다른 방법과 내용으로 제목을 쓸 수도 있다. 각 단락의 소주제와 구체적인 내용은 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해 써 넣었다. 이 문제는 개요를 작성하는 훈련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정연한 구조의 글을 읽고 그 방법을 익히는 문제로서도 의미가 있다. 글이 읽히기 위한 것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에 누구나 알 수 있는 전개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연습 다음에 제시되는 글을 읽고 개요의 빈칸에 알맞게 쓰시오.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편지를 받아보기는 생전 처음이다. 이 생면부지 이메일의 내용은 대개 “한국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을 사수해 달라.”는 것이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명한 과학 학술지 <네이처>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세계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려는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며 흥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딱 2주 뒤에 전 세계의 누리꾼들은 ‘한국이 창조론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똑같은 <네이처>에서 읽어야 했다. 아마도 처음엔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이다. 세계 과학기술계를 선도하겠다던 한국이 2주 뒤에는 창조론을 인정한다니.

이런 희한한 상황은 안타깝게도 우리 과학교육의 현실이다. 그래서 스위스의 한 단체가 한국의 과학경쟁력을 5위(기술경쟁력은 14위)로 평가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 없다. 어떤 분들은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교진추)의 청원에 의해 시작된 과학교과서 파문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도 한다. 이번 일로 우리 과학교과서에서 진화론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교과부도 절차상으로 큰 과오를 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밖에서 더 난리라는 시각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이번 사태는 전 세계 과학교과서의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경우로, 특정 종교 단체가 과학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매우 위중한 사건이다.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과학기술 후진국도 아닌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교진추가 기독교 단체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진추는 한국 창조과학회의 교과서분과위원회가 전략적으로 이름만 세탁해 만든 산하단체이다. 그런데 창조과학회는 누리집에서 “복음 전파의 커다란 장애물인 진화론의 허구성을 밝히고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세부 목표라고 말한다.

이번 파문의 또 다른 핵심은 이 모든 과정에서 교과부가 한 일이라고 청원서를 출판사에 배달해준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청원이 들어오면 해당 기관은 1~2주일 안에 응답해줘야 해 출판사를 통해 답변을 보내줬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수정된 교과서를 수십만의 학생들이 밀줄을 치며 공부할 것이라는 상식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교진추가 준비하고 있다고 떠드는 후속 청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려는가? 또 만일 어떤 불교인이 윤회 교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진화론 반대 청원을 낸다면 그 경우에도 배달원 노릇만 할 것인가?

만일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교과서 수정 절차와 관행에 대한 문책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없다면, 앞으로 비슷한 청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종교적 열정만큼 못 말리는 것도 없다. 만일 교과부가 기껏 ‘청원 시에 전문가 심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도로 쉽게 결론 내린다면, 앞으로 진화 전문가들은 쓸데없는 심사에 불려나가 시간과 지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교과부는 종교적 목적으로 과학교과서의 내용에 간섭하려는 모든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법적 근거

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 초중등교육법에도 “인정 교과서의 내용이 특정 정당·종교를 지지하는 등 교과용 도서로서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우려되는 경우” 따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법령의 정신이 종교와 과학의 분리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이번 경우에도 확대 적용될 만한 조항이다. 정말 21세기 한국에서 살고 싶다.

■ 제목 : 우리는 과학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가?

■ 주제 :
.....

■ 글의 구성과 세부 내용

1. 서론

- 진화론 사수를 청원하는 외국인의 편지
-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교과서 논쟁

2. 우리 과학교육의 현실과 교진주 파문

- 교진주 파문
- 교진주 파문에 대한 응호론

3.
.....
.....

- 교진주 파문의 문제점
- 교진주의 실체

4.
.....
.....

- 교과부 담당자의 무책임한 답변
- 교과부 태도 비판

5.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 촉구

-
.....